

‘홈런 왕국’ KIA 홈런 구경 어렵네

V10 원동력 팀 홈런 을 최하위로 곤두박질 너도나도 ‘한방 의식’에 타격감 무너져 고심



홈런에 웃었던 호랑이들이 ‘홈런 딜레마’에 빠졌다. 2009시즌 KIA 타이거즈의 12년 만의 우승에는 ‘한방’이 있었다. 홈런왕 김상현을 필두로 최희섭·나지완이 92개의 홈런을 합작했다. 김상현·안치홍도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내면서 KIA는 SK, 한화에 이어 전체 팀홈런 3위(156개)에 랭크됐다. 2008년 48개의 홈런으로 독보적인(?) 꼴지를 기록했던 KIA의 대반전극이었다. 특히 KIA는 8월 한 달 15개의 홈런으로 38타점을 만든 김상현의 활약과 김원섭의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 나지완의 대타 만루홈런, 장성호의 역전 만루홈런 등 극적인 홈런쇼로 무려 20승을 수확하며 프로 야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팀 타율 꼴찌에도 불구하고 KIA가 1위를 수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양가 만점의 홈런과 높은 마운드 덕분이었다. 홈런에 웃었던 KIA는 지난 겨울 장타 양산에 초점을 맞추고 시즌을 준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타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6일 현재 KIA는 31개의 홈런을 장식하는데 그치며 팀 홈런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홈런포를 책임졌던 김상현·나지완이 부상과 부진으로 타선을 이탈했고, 지난해 생애 첫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던 김상훈도 재할군 신세다. 지난 23일 넥센을 상대로 마수잡이 홈런을 기록했던 안치홍도 장타보다는 맞추는 타격에 주력하고 있다. 최희섭 홀로 두 자릿수 홈런을 채웠지만 믿음만한 홈런쇼로 무려 20승을 수확하며 프로 야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홈런에 대한 KIA의 고민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장타 구경하기 힘들다는 것보다 KIA를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한방’을 의식한 타격에 전반적인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실패 케이스가 이용규다. 전지훈런 당시 이용규는 장타를 의식하며 타격폼을 수정했다. 그러나 완전히 익지 않은 폼 때문에 4월 극심한 부진에 빠진 이용규는 다시 방망이를 짧게 들면서 슬럼프에서 겨우 탈출했다. 타선의 동반 침체가 이어진 4월 KIA 타자들은 극단적인 스윙을 선보이며 타이밍 싸움에서 완패했다. 5월 초반 타선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타자들의 방망이는 허공을 맴돌면서 KIA 타격은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팀홈런과 함께 팀타율도 최하위다. 꼼꼼하고 세밀한 대처가 부족하면 서 신에 투수들의 대응문이라는 오명도 여전하다. 한방을 통한 분위기 반전이나 세밀한 타격을 통한 꾸준한 타격이나 ‘홈런 딜레마’에 빠진 KIA에게 타선의 새판짜기가 시급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신고·동신여고 정구 복식 3개팀 ‘한국대표’ 한중일 J종합경기대회

동신고·동신여고 정구 복식 3개팀이 오는 8월 중국서 열리는 제18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한국대표로 출전한다. 동신고 윤성원·박선호, 동신여고 임수민·최미란, 김지연·김이주 주가 27일 제주 연정정구장에서 열린 대표선발 최종전 남녀부 복식에서 우승, 태극마크를 달게됐다. 윤성원·박선호 조는 이날 남고부 1차 결승에서 경기 안상고를 4-2로 꺾고 대회 출전 티켓을 확보했다. 윤-박 조는 이어 열린 최종결승에서 충남 기계공고 이윤호·박상민 조에 1-2(1-4, 4-2, 0-4)로 아쉽게 패했다. 여고부 복식경기에서는 동신여고 B팀 임수민·최미란 조와 동신여고 A팀 김지연·김이주 조가 나란히 최종 결승에 올라 두정의 출전티켓을 거머쥐었다. 최종 결승에서는 B팀이 2-1(4-3, 3-4, 4-3)로 A팀을 꺾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정광수 카약 1인승 우승

정광수(전북체육회)가 제9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카약 1인승(K-1)에서 우승했다. 정광수는 27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 카누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남자 일반부 K-1 500m에서 1분49초96에 결승선에 들어오면서 김용교(부산강서구청·1분51초69)를 제치고 금메달을 들었다. 카약 2인승(K-2) 500m에서는 남성호·문철욱(부산강서구청)이 1분37초59로 1위에 올랐다. 남자 일반부 캐나다인 1인승(C-1) 500m에서는 이승우(대구동구청·2분05초40), 캐나다인 2인승(C-2) 500m에서는 삼대섭·한승훈(서울강동구청·1분52초94)이 각각 정상 차지했다. /연합뉴스

11월 아시안게임 야구 1차 엔트리 발표

윤석민·추신수 등 60명

광저우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예비 엔트리 발표됐다. 한국야구위원회와 대한야구협회가 27일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60명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번 명단에는 추신수(클리블랜드) 등 해외진출 선수 3명을 포함한 프로선수 57명과 아마선수 3명(상무1·대학2)이 이름을 올렸다. 투수는 총 27명으로 KIA에서는 ‘원투런치’ 윤석민·양현종과 우완 광정철, 언더 손영민이 포진했다. KIA의 안방마님 김상훈, ‘아기호랑이’ 안치홍과 ‘WBC의 스타’ 이용규도 내·야수 명단에 합류했다. 상무에서 군복무중인 KIA 출신의 우완 임준혁도 깜짝 발탁됐다. 이번 명단은 당초 47명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포지션간 겸합이 치열하고 메달이 유력시 되는 종목임을 감안해 대한체육회에 증원을 건의하면서 60명으로 확정됐다. 최종 22명의 명단은 9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60명

- 명단
- ▲투수(27명)
 - 우투(15명)=윤석민·광정철·양현종·손영민(이상 KIA), 정현욱·오승환·안지민(이상 삼성) 송승준·조정훈·장원준(이상 롯데), 임태훈·이용찬·고창성(이상 두산), 류현진·양훈·유원상(이상 한화), 손승락·급민철(이상 넥센), 김광현·이승호·송은범·정우람·정대현(이상 SK), 봉준근(LG), 임준혁(상무), 김명성(중앙대), 나성범(연세대)
 - ▲포수(5명)= 김상훈(KIA)·박경완(SK), 진갑용(삼성), 강민호(롯데), 조인성(LG)
 - ▲내야수(16명)=안치홍(KIA), 박정권·정근우·최정·나주환(이상 SK), 고영민·이원석·손시현(이상 두산), 이대형·박기혁(이상 롯데), 황재균·강정호(이상 넥센), 채태인(삼성), 송광민(한화), 김태균(지바 롯데)·이범호(소프트뱅크)
 - ▲외야수(10명)=이용규(KIA), 김현수·이종욱(이상 두산), 이대형·이정영·이택근(이상 LG), 유한준(넥센), 박한이(삼성), 김강민(SK), 추신수(클리블랜드)
 - ▲지명타자(2명)=홍성흔(롯데), 김태완(한화)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두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두 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치며 타격 감각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 볼넷 1개를 골라내고 4타수 1안타를 쳤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302로 약간 떨어졌다. 클리블랜드는 4-5로 패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 쇼유스배구 4강행

한국이 제8회 아시아유스(17~18세)여자 배구선수권대회에서 카자흐스탄을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대회 8강에서 카자흐스탄에 3-1(25-22, 17-25, 25-11, 25-15)로 이겼다. 한국은 27일 중국과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이 대회에서 3위 안에 들면 내년 세계유스배구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준다. /연합뉴스

있는 힘을 다하여

27일 오후 서울 잠실한국생명비치발리볼경기장에서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월드컵’이 2010 크라운·해태제과 서울 오픈이 열렸다. 한국의 한지연이 브라질 선수의 공격을 블로킹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아 금메달 “영구보존 검토”

국가기록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에서 김연아(20·고려대)가 따낸 금메달을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에 영구보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김연아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은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금메달을 비롯해 대회 당시 입었던 드레스와 스케이트 부츠 등은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종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도 필요하고 율리우스기법 등 유사기법과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보존할 방법을 만드는 작업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자료가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서고에 보존한다. /연합뉴스

우즈 내달 4일 PGA 투어 복귀

타이거 우즈가 6월4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복귀한다. 목 통증 때문에 5월10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대회 도중 기권한 우즈는 27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휴식을 취했고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했다”며 “몸상태가 100%는 아니지만 훨씬 좋아져 다음 주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밝혔다. 우즈는 작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포함해 네차례 정상에 올랐다.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퓨어필드 빌리지 골프장에서 열리는 메모리얼 토너먼트는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주최하는 대회다. 우즈는 6월17일 개막하는 메이저대회 US오픈을 대비해 샷 감각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MEGABOX

1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최고급관
2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3관	로빈후드 (15세)	
4관	꿈은 이루어진다 (15세)	
5관	드래곤길들이기 3D(자막)더빙(전세)	
6관	내 남자의 순이 (15세)	
7관	내 캠페같은 애인 (15세)	
8관	나이트메어 (18세) / 시 (15세) / 아이언맨 2 (12세)	
9관	하녀 (18세)	
10관	하녀 (18세)	

• 호남주치단원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전설의 대작이 선택한 단 하나의 영웅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판 www.megabox.co.kr
구.현대학사거리 ☎ 1544-0600

컬럼버스시네마

1관	내 캠페같은 애인 (15세) / 시 (15세)
2관	내 남자의 순이 (15세)
3관	아이언맨 2 (12세) / 구르물 버서난 달처럼 (15세)
4관	로빈후드 (15세)
5관	드래곤길들이기 3D(전세) / 하녀 (18세)
6관	나이트메어 (18세)
7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8관	꿈은 이루어진다 (15세)
9관	하녀 (18세)
10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1588-7941 상담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CINUS 색깔있는 영화산책 씨너스

1관	로빈후드 (15세)
2관	하녀 (18세)
3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4관	꿈은 이루어진다 (15세)
5관	내 캠페같은 애인 (15세)
6관	나이트메어 (18세)
7관	페르시아의 왕자 (12세)
8관	아이언맨 2 (12세)
9관	드래곤길들이기 3D(자막)더빙(전세)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용신사 할인혜택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Primus 영화보는 즐거움이 있는 곳 제일극장

1관	하녀 (18세)
2관	아이언맨 2 (12세)
3관	내 캠페같은 애인 (15세)
4관	나이트메어 (18세)
5관	로빈후드 (15세)
6관	드래곤길들이기 (3D)전세
7관	구르물 버서난 달처럼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서문소 일호타워유치점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글래디에이터〉의 10년 신화가 깨진다!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kcinema.co.kr
종장로 3가 ARS 전화예매 ☎ 227-1960